

‘역전세’ 현실화되나 직전 계약보다 전세값 하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이 전체 대비 3분의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머니S’에 따르면 한국 국토연구원은 이날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2분기 거래된 전국 전세주택 중 33.8%가 직전 계약(약 2년 전)과 비교해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33.7%, 비수도권이 34%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37.4% ●단독·다가구 주택 25.7% ●연립·다세대 18.4%다.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보다 떨어지면 임대인은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때 임대인의 차입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도 함께 발생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보유한 196만가구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1% 하락할 때 역전세 위험 노출가능 주택의 규모는 80만가구, 7% 하락시 83만가구, 15% 하락시 88만가구로 나타났다. 이

는 전체 전세주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전세가격 하락률이 6%인 구간에서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이 82만8,000가구로 급격히 증가해 전세주택의 약 42.13%가 차입 또는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해당 주택의 가격이 가입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성을 가진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을 설립하고 의무가입대상 설정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보증부 월세도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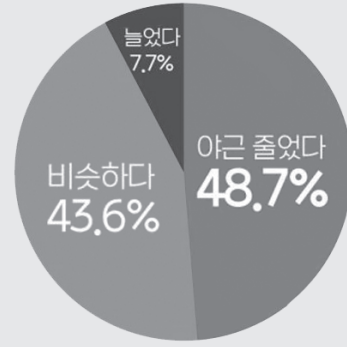
직장인 48.7% “주 52시간 근무제로 야근 줄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야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이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780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야근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먼저 ‘요즘 야근을 자주 합니까?’라는 질문에 ‘가끔 한다(42.9%)’거나 ‘거의 안 한다(41.9%)’는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야근을 자주 한다’는 응답자는 15.2%에 그쳤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야근 빈도는 전과 비교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는 ‘야근이 줄었다’는 응답자가 48.7%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전과 비슷하다(43.6%)’는 응답자가 많았고 ‘야근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7.7%에 그쳤다.

야근을 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 다 하지 못했다(53.6%)’나 ‘갑자기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업무 때문에(50.1%)’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이 각각 과반 이상의 응답률(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본연의 업무보다 보고·관리하는 업무가 많아서(16.2%) ●업무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해서(해외무역 등 15.1%) ●퇴근시간이 임박했을 때 업무 지시를 받아서(14.5%)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13.6%)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직장인들에게 야근을 해야 할 경우 어느 요일에 하는지 묻자 주로 ‘월요일(21.9%)’이나 ‘화요일(21.4%)’에 야근을 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야근을 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다는 직장인이 4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 1시간 정도(25.4%)’ 또는 ‘약 3시간 정도(20.3%)’ 순으로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한편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약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을 할 경우 야근수당은 지급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5%가 ‘야근 수당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야근수당은 없으나 저녁식사를 제공한다’는 답변은 19.1%였다. 이밖에 ‘야근 수당이 없고 저녁식사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1.4%였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